정종진 설욕이냐, 임채빈 세대교체냐

8월 첫 맞대결에선 임채빈 승리
대상경주에서 두번째 격돌 기대
지역별 대결구도도 관전 포인트
"복병들의 반격 가능성에 주의를"



8월 온라인 발매(Speed-On) 론칭 기념 특별대상경륜 결승 경주에 출전한 임채빈(7번·왼쪽)과 정종진(1번·왼쪽에서 두 번째). 두 선수는 오는 15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리는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주에서 다시 맞붙는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재 경륜을 대표하는 두 스타, 정종진과 임채빈의 재격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두 선수의 재격돌 무대는 '경륜 개장 27주년 기념 대상경주'. 경륜 종합랭킹 1위부터 30위까지 격돌하는 무대로 올 시즌 두 번째 열리는 대상경주다.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스피돔에서 진행한다. 이번 대상 경주는 특선급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대상경주 3일 동안 광명에서는 특선급 경주만 진행한다. 대신 창원과 부산은 평소와 동일하게 선발급과 우수급 경주를 실시한다.

미리 보는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대상경주에서 역시 관심은 정종진과 임채빈의 두 번째 격돌이다.

●정종진 vs 임채빈…올해 최대 빅이벤트

두 선수는 8월 온라인 발매(Speed-On) 론칭 기념 특별대상경륜에서 첫 맞대결을 펼쳤다. 선배 실력자들을 잇따라 격파하던 '괴물신인' 임채빈과 자타 공인 '경륜 대세' 정종진의 첫 맞대결에서 승자는 임채빈이었다.

이번에 '개장 기념 대상경주'에서 다시 맞붙는다면 정종진으로선 설욕의 무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임채빈도 지난번 승리가 우연이 아니고 자신이 경륜의 새로운 간판스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현재까지 두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 어느 한 선수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볼 수 없다. 일단 종합득점에서는 정종진이 1등으로 임채빈보다 근소하게 앞선다. 하지만 승률은 95%인 임채빈이 86%의 정종진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임채빈의 승부거리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첫 맞대결은 임채빈을 마크했던 정종진이 신은섭과의 몸싸움에서 밀리며 뒤늦게 추격하다가 2착에 그쳤다. 따라서 제대로 된 두 선수의 실력대결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대결에서 정종진이 제대로만 붙었다면 역전도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또 임채빈이 정종진을 따돌린다면 명실상부 임채빈의 독주시대가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대결도 관심, 수적 우세 수도권 유리

미리 보는 그랑프리답게 지역별 대결구도 역시 뜨겁다. 이번 경주에는 김포, 수성, 동서울, 세종팀 등 경륜을 대표하는 4개 지역 특선급 강자들이 모두 출전한다. 예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대상 경주와 같은 큰 경기일수록 협공세력이 많은 지역이 유리해 강자들이 친분세력들을 챙기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자원이 풍부한 김포팀이 유리한 조건이다. 정종진을 비롯해 정정교, 공태민, 황승호, 정재원, 인치환 등 막강 라인업을 자랑해 팀원 중 다수가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동서울팀인 정하늘과 정해민, 전원규 등도 김포와 연계 가능한 팀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이 수적으로 유리하다.

수성팀도 화력은 막강하다. 선행 최강인 임채빈을 비롯해 류재열과 류재민 형제, 그리고 김민준, 안창진 등이 결승 진출을 노릴 전망이다. 류재열과 김민준은 후미 견제력이 탁월한 선수들이어서 임채빈과 함께 결승 진출 시 협공을 통해 동반입상까지 모색할 수 있다.

세종팀도 황인혁을 중심으로 김관희, 황준하, 임치형, 김환윤, 정태양 등 힘이 좋은 선행 강자들이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설경석 최강경륜 편집장은 "이번 대상경주는 임채빈이 정종진의 추격을 뿌리치고 독주체제를 굳힐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도전하는 정종진의 입장에선 모든 걸 걸어야하기에 올해 최대 빅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채빈과 정종진의 정면대결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황인혁, 정하늘 등 복병들의 반격으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14승 심상철·13승 김민천 공백 경정 다승 타이틀 경쟁 혼전양상

상금 부문도 1~10위 접전…쿠리하라배가 관건

후반기에 접어든 2021시즌 경정이지만 다승, 상금 등 각 부문 타이틀 경쟁은 시즌 초반만큼 치열하다.

다승 부문은 뜻하지 않은 플라잉 사태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변했다. 시즌 14승으로 단독 선두이던 심상철과 35회차에서 2승을 추가하며 13승으로 심상철을 바짝 추격했던 김민천이 모두 플라잉이라는 암초를 만나 당분간 출전 공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10승으로 다승 공동 3위권인 김종민, 김완석, 김민준, 조성인, 김민길 등 내로라하는 강자들이 얼마든지 선두권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물론 심상철과 김민천은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선두권 형성이 예상되지만 플라잉 징계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높은 경기력을 유지하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시즌 다승왕 경쟁은 시즌 막판까지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민천, 김민길 형제가 다승랭킹 10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상금 부문의 경쟁도 다승 못지않게 치열하다. 1위부터 10위까지 수득 상금이 몇 백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출전을 할 때마다 순위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처럼 상금 랭킹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이번 시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승 상금이 큰 대상 경주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38회차(10월 20~21일)에 올 시즌 첫 대상경주라 할 수 있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이 열린다. 이 대회의 성적이 이번 시즌 상금 부문에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상철과 김민천 모두 플라잉 제재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 쿠리하라배의 결과에 따라 상금 부문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쉬운 점은 타이틀 경쟁에서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예년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즌 초반 온라인 경주 비중이 높았지만, 올해는 유독 여자 선수들의 활약상이 예년 시즌만 못하다. 김인혜 정도가 다승이나 상금 부문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들며 여성 선수들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한 두 명의 선수가 독주하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타이틀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며 "이러한 순위 다툼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경정을 즐기는 데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휴면 그린카드 예치금 찾아가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그린카드 이용고객 중 장기간 휴면상태인 고객 3만5000명에 대해 예치금 환급방법을 안내했다. 환급은 경륜·경정 본장 또는 가까운 영업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영업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스피드온(Speed-On)을 통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경륜본장(광명)과 수원·부천·산본 지점은 매주 금~일요일, 경정본장(미사리)은 수~목요일, 장안·분당·중랑·관악·시흥·성북·강남·대전·인천·천안·의정부·동대문 지점은 수~일요일 현장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가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스피드온을 통해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포털 회원가입을 하면 그린카드 예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동된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경륜·경정 이용고객 중독 예방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9월30일과 10월1일 천안지점과 대전지점에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경륜·경정 이용고객들의 도박중독과 책임도박에 대한 인식 강화와 건전레저 문화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주사업총괄본부 희망길벗 전문상담사가 사행산업의 정의와 합법(경륜·경정, 스포츠토토 등)과 불법 사행산업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행성게임 과몰입 자가진단표 작성으로 개인별 위험성 여부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대해 자세한 내용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면 희망길벗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4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K T	123	69	48	6	0.590	-	1승	0.268	3.73	0.638	637	509	92	98	92
2	L G	118	63	49	6	0.563	3.5	1승	0.256	3.71	0.613	545	477	98	74	78
3	삼 성	126	66	52	8	0.559	3.5	1승	0.271	4.37	0.607	643	588	122	106	80
4	두 산	120	60	55	5	0.522	8.0	1패	0.272	4.25	0.527	628	551	98	61	74
5	키 움	125	60	59	6	0.504	10.0	2패	0.256	4.30	0.607	624	612	80	86	112
6	N C	120	56	58	6	0.491	11.5	1패	0.264	4.59	0.518	607	592	150	86	99
6	SSG	25	56	58	11	.491	1.5	2패	.262	5.05	.569	645	666	162	87	89
8	롯 데	124	57	62	5	0.479	13.0	4승	0.276	5.39	0.463	638	701	93	55	73
9	K I A	119	46	66	7	0.411	20.5	2승	0.247	5.07	0.475	478	639	56	58	89
10	한 화	126	45	71	10	0.388	23.5	1패	0.241	4.73	0.426	537	647	72	98	100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홈런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미란다	두 산	2.33	24	150.1	43	39	13	5	0	113	11	194	53	0.206	1.10
2	백정현	삼 성	2.60	24	138.2	48	40	13	4	0	126	13	94	51	0.245	1.26
3	요키시	키 움	2.73	26	151.2	57	46	13	7	0	139	11	112	43	0.246	1.17
4	고영표	K T	2.81	22	144.1	50	45	11	4	0	118	6	103	38	0.225	0.98
5	최원준	두 산	2.84	24	136.1	49	43	11	2	0	128	14	98	43	0.245	1.19
6	루친스키	N C	2.85	25	151.2	59	48	13	8	0	128	12	143	52	0.222	1.14
7	원태인	삼 성	2.89	23	140.0	50	45	13	6	0	127	10	116	50	0.245	1.24
8	켈 리	L G	2.97	25	148.2	51	49	12	6	0	131	11	119	60	0.238	1.22
9	로 켓	두 산	2.98	21	124.0	44	41	9	9	0	132	5	112	54	0.277	1.40
10	뷰캐넌	삼 성	3.11	25	147.2	59	51	13	5	0	145	10	135	52	0.252	1.33
11	데스파이네	K T	3.45	28	156.1	70	60	10	9	0	146	9	149	72	0.244	1.35
12	폰 트	SSG	.56	22	129.0	54	51	7	4	0	98	1	44	43	.207	.05
13	카펜터	한 화	3.92	27	147.0	76	64	5	11	0	130	14	158	78	0.235	1.31
14	박세웅	롯 데	4.01	23	134.2	62	60	8	7	0	118	19	106	49	0.231	1.17
15	김민우	한 화	4.20	25	137.0	66	64	12	9	0	117	15	114	74	0.231	1.34
16	스트레일리	롯 데	4.30	26	138.0	76	66	8	11	0	140	10	132	66	0.266	1.46
17	신민혁	N C	4.80	26	120.0	68	64	7	6	0	139	15	87	40	0.287	1.45

※피타율: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안타+볼넷) ÷ 이닝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득점권	OPS
1	강백호	K T	0.357	121	434	155	14	66	92	9	90	73	17	0.326	0.998
2	이정후	키 움	0.355	104	389	138	4	67	63	7	66	31	3	0.327	0.939
3	홍창기	L G	0.338	118	432	146	4	84	47	21	101	73	1	0.356	0.890
4	전준우	롯 데	0.335	124	471	158	7	77	83	6	56	61	0	0.434	0.864
5	양의지	N C	0.329	117	398	131	25	71	94	2	68	51	3	0.387	1.008
6	박건우	두 산	0.327	103	379	124	4	66	50	11	48	58	1	0.340	0.837
7	페르난데스	두 산	0.321	117	449	144	14	64	71	0	61	30	1	0.291	0.858
8	손아섭	롯 데	0.312	119	465	145	1	77	46	11	57	56	4	0.310	0.759
9	황재균	K T	0.309	96	372	115	10	65	49	11	41	77	12	0.320	0.805
10	강민호	삼 성	0.307	109	362	111	16	49	62	0	40	44	7	0.254	0.863
11	구자욱	삼 성	0.305	121	475	145	20	97	76	26	49	86	3	0.287	0.879
12	정 훈	롯 데	0.303	116	432	131	13	66	72	8	64	81	1	0.250	0.847
13	박성한	SSG	.301	16	36	01	3	47	34	12	42	58	1	.293	.762
14	안치홍	롯 데	0.300	99	360	108	9	51	70	3	50	53	6	0.370	0.833
15	김혜성	키 움	0.300	125	484	145	3	84	59	40	56	85	30	0.301	0.733
16	최원준	K I A	0.297	118	488	145	4	70	39	28	58	51	7	0.284	0.757
17	김선빈	K I A	0.295	112	434	128	5	49	55	0	54	33	6	0.291	0.765
18	피렐라	삼 성	0.293	123	492	144	26	94	91	9	57	75	0	0.304	0.872
19	박해민	삼 성	0.292	110	391	114	5	71	49	33	62	72	1	0.317	0.772
20	김재환	두 산	0.291	114	402	117	24	75	94	2	68	108	3	0.358	0.924
21	이대호	롯 데	0.290	94	352	102	17	36	70	0	35	41	2	0.273	0.814
22	이용규	키 움	0.290	115	390	113	0	72	37	17	67	39	3	0.264	0.751
23	허경민	두 산	0.289	113	415	120	5	56	53	3	36	31	7	0.299	0.732
24	나성범	N C	0.289	120	474	137	30	84	86	1	45	122	4	0.273	0.880
25	오재일	삼 성	0.286	102	353	101	23	55	84	0	52	95	2	0.260	0.898
26	김현수	L G	0.286	115	416	119	14	59	73	1	65	36	0	0.248	0.821
27	최 정	SSG	.284	18	87	10	30	81	90	8	86	90	9	.302	.968
28	김태진	K I A	0.283	93	360	102	1	41	36	8	23	61	16	0.295	0.676
29	정은원	한 화	0.283	125	445	126	5	78	36	19	97	92	10	0.319	0.796
30	하주석	한 화	0.279	120	462	129	9	74	60	19	52	113	13	0.271	0.754
31	최재훈	한 화	0.275	105	334	92	6	48	37	3	79	60	1	0.267	0.789
32	양석환	두 산	0.275	120	448	123	26	60	86	2	46	121	8	0.278	0.833
33	노시환	한 화	0.274	98	347	95	17	53	81	5	70	99	18	0.364	0.871
34	마차도	롯 데	0.274	114	391	107	4	71	51	8	55	56	11	0.330	0.711
35	한유섬	SSG	.267	18	93	05	25	60	77	0	60	87	2	.291	.859
36	한동희	롯 데	0.267	109	352	94	14	45	60	0	59	82	13	0.283	0.810
37	서건창	L G	0.267	119	435	116	5	69	43	10	64	61	8	0.275	0.718
38	알테어	N C	0.266	119	410	109	27	67	70	14	54	129	2	0.226	0.855

※득점권 타율: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 시 타율 OPS: 출루율 ÷ 장타율

프로축구 〈5일〉

•팀순위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1	울산	64	18	4	10	53	33
2	전북	63	18	5	9	56	30
3	대구	49	13	9	10	37	35
4	수원FC	45	12	11	9	44	46
5	제주	43	10	8	13	39	35
6	수원	42	11	12	9	39	40
7	포항	42	11	12	9	35	39
8	인천	37	10	14	7	32	41
9	서울	34	8	14	10	33	39
10	성남	34	8	14	10	28	39
11	강원	30	7	13	9	29	36
12	광주	29	8	18	5	30	42

득점

선수	팀	득점
① 주민규	제주	15
② 라스	수원FC	15
③ 구스타보	전북	12
④ 일류첸코	전북	12
⑤ 뮬리치	성남	12

도움

선수	팀	도움
① 김보경	전북	9
② 무릴로	수원FC	8
③ 이영재	수원FC	7
④ 강상우	포항	7
⑤ 김태환	울산	6

NFL 〈5일〉

•경기결과

LAC	28 - 14	라스베가스	

아마추어 경기결과 〈5일〉

축구 ●2021 U리그(각 권역별 승인경기장)
•6권역=전주기전대(7승2패) 7-0 세한대(1승2무10패)
•6권역 현재 순위=① 건국대(25점), ② 전주기전대(21점), ③ 한남대(21점)

탁구 ●2021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카타르 도하)
•여자 단식 결승전=하야타(일본) 3-1 신유빈(한국) •남자 복식 결승전=우다,토가미(일본) 3-1 장우진,임종훈(한국)
•혼합 복식 결승전=토가미, 하야타(일본) 3-1 장우진,전지희(한국)

경기예고

프로야구 〈6일〉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KIA (-)	〈사직〉	롯데 (-)	NC (-)	〈수원〉	KT (-)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삼성 (-)	〈고척〉	키움 (-)	두산 (-)	〈대전〉	한화 (-)
오후6시30분, SPOTV2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대전 CMB		
SSG (-)	〈잠실·DH1〉	LG (-)	SSG (-)	〈잠실·DH2〉	LG (-)
오후3시, KBSN스포츠, MBC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SPOTV			오후6시30분, SPOTV		

프로축구 〈6일〉

•하나원큐 K리그1 2021 〈26라운드〉

인천	〈인천전용〉	강원
오후7시, 스카이스포츠		

오늘의 토토 〈6일〉

•야구토토 스페셜 116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10.06 (수) 18:30	롯데 vs KIA	부산사직운동장
2	10.06 (수) 18:30	KT vs NC	수원케이티위즈파크
3	10.06 (수) 18:30	키움 vs 삼성	고척스카이돔